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남도교회의 사서실 장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신근

다음 주일에 2000년도 일꾼 임명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제직 및 교구, 교회학교 교사, 2, 4부 찬양대원,
2, 4부예배 헌금 및 안내 봉사자

12월 주일에는 대망의 2000년도의 교회일꾼들이 임명된다. 금번에 임명되는 일꾼들은 제직 및 교구일꾼, 교회학교 교사, 2, 4부 찬양대원, 그리고 2, 4부예배 헌금 및 안내봉사자 등이며, 그밖에 1, 3, 5부 찬양대원 및 예배 헌금, 안내 봉사자, 각 위원회 실행위원들에 대한 임명은 19일 주일에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임명받는 일꾼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온총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12월에 진행될 기타 주요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행 사	일 시
교회학교 교사총회	21일(화)
교구총회	12일(주일) 이후
전도위원회의 총회	12일(주일) 이후
교회학교 성탄축하의 밤	24일(금) 저녁 7시
성탄절 예배	25일(토) 1부 9시, 2부 11시
예·결산보고를 위한 특별제직회	26일(주일) 찬양예배후
은퇴 및 근속자 포상	26일(주일) 찬양예배후
교회학교 수료식	26일(주일) 각 부서 예배시

제6차 학습세례식

1999년도 마지막 잔치로
12월 26일 찬양예배시에

1999년도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12월 26일 찬양예배시에 거행된다. 21세기를 불과 5일 앞두고서 학습, 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 등을 받게 되는 성도들은 새 천년을 건국한 믿음으로 맞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아래의 일정에 따라 교육에 충실히 임해야 하겠다.

날짜	시간	학습지	장소	세례지	개종지	장소	유아세례	장소
12월 12일 (주일)	12시	성경1회	2교관	세례관	개종관	2교관	유아세례	2교관
	5:00~5:50	(충현회 목사)	3교관	(충현회 목사)	(충현회 목사)	3교관	(충현회 목사)	3교관
12월 19일 (주일)	12시	기독교1회	2교관	개종관	개종관	2교관	유아세례	2교관
	5:00~5:50	(충현회 목사)	3교관	(충현회 목사)	(충현회 목사)	3교관	(충현회 목사)	3교관
12월 26일 (주일)	12시	구원론	2교관	구원론	구원론	2교관	유아세례	2교관
	5:00~5:50	(충현회 목사)	3교관	(충현회 목사)	(충현회 목사)	3교관	(충현회 목사)	3교관
12월 27일 (주일)	12시	문답	2교관	문답	문답	2교관	유아세례	2교관
	5:00~5:50	(충현회 목사)	3교관	(충현회 목사)	(충현회 목사)	3교관	(충현회 목사)	3교관

성경연구원

18개반 627명 수료 예정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성경연구원 산하 각 성경공부반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크로세이만 및 성경과 권반으로 이루어진 주간성경공부반은 이제 12월 7일부터 시작하여 14일에 걸쳐 대략 종강하게 되며 16개반에서 공부하고 수료하게 되는 수강생은 모두 503명이다. 한편 26일에 종료되는 교사양성반은 현재 96명이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미 11월 30일에 종강한 찬양대원양성반에서는 28명이 수료하였다.

앞으로 점차 체계적인 과정을 밟아가게 될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중원의 성도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들은 계속 관심을 기울여 동참해야 하겠다.

서리집사·권찰 후보자 교육 및 면접 마쳐

지난 12월 1일(수)에는 2000년도 신임 서리집사·권찰 후보자 교육 및 면접이 있었다. 이날 교육과 면접은 1차(낮)와 2차(밤)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후보자들은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교육훈련원에서는 절빙이나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중으로 추가 교육 및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도위원회 1일수련회

전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화) 전도위원회 임직원, 직능전도부 회장 및 지도교역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를 통해서 일꾼들은 세대의 더욱 힘있는 사역을 위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후반기 구역장양성교육

12월 15일 종강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되어 김성관 위원장사의 특강을 포함 총13시간 동안 진행되어온 남성 및 여성 구역장 양성교육이 15일(수) 종강한다. 금번 하반기 양성교육에서는 ‘구별된 삶’을 포함하여 구역장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구역원들을 섬기는 사역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주요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군전도회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탄 선물

군전도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는 형제들(277명)에게 성탄선물을 보내기로 하고 신앙서적과 위임목사의 격려편지를 준비하였다. 성도들은 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이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예수 안에 거하면서 더욱더 건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단기 평신도선교사 3인 12월 22일 수리남 파송

오경진, 이수경, 한정은 등 단기 평신도선교사 3인이 12월 22일(수) 수리남으로 파송된다. 이들은 1년간 수리남 현지에서 머물면서 안식월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 원주인 사역을 뿌리내리고 확장하는 일을 섬길 예정이다. 단 선교사는 이 일을 위해 현재 부근 원주인 지역들을 답사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 제목

-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성령충만하여 하나님만 의지케 하소서.
- 영, 육이 강건하여 잘 직공케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 세 사람 및 현직인들 간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우리들은 오늘을 지각없는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중등3부까지 9개 부서는 오늘을 ‘지각없는 주일’로 정하고서 수주일 전부터 준비해 왔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이 행사가 단회적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 및 은 성도들의 모범과 기도가 요청된다.

“교회 기쁨장 합니다”

각 교구에서 사랑의 수고로 연합

교회 식당에서는 12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3일에 걸쳐 감장을 담금 예정이다. 5분 트릭한 대본 약 2천 5백여 포기의 배추와 두 3백만 등을 감장으로 담금게되는 큰 일을 위해 각 교구에서는 교구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일에는 2, 4, 6, 8, 10, 12, 16, 17교구에서, 7일에는 3, 5, 7, 9, 11, 13, 14, 15교구에서 교구별로 각 15명씩, 8일에는 1교구에서 30명의 자원봉사자가 협력할 예정이다.

선교사에게 편지 보내기

성탄절과 새해를 선교지에서 맞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랑과 격려가 가득 담긴 편지 및 카드를 보내고자 하오니 교구 및 각 부서, 성도 개인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기간: 다음 주일(12월까지)
- 접수장소: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김창인 목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히브리서 3:1-6)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

저와 여러분들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영원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1절).

우리 스승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우리들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 한 형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고 켄달만 예수님만은 잊어버리서는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위에 머무는 나그네 생활 속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쯤에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1절)

1.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사도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8-29).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선생님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는 도리의 선생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2.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범했어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팔경 동안 살인 강도질하던 못된 죄인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똑같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두 강도였습니. 그런데 하나는 사형 집행을 당하면 서도 예수님에 대해 비방을 함부로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니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한 것이라”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의인인 줄 알았고 그리하였기에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눅 23:39-43).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문제는 인 간적인 어떤 노력, 즉 선을 행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지옥을 준비하셨으나 범죄자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멸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결코 살 수 있는 형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범하였어도 공평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3. 충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어느 곳에서 만나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결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약합니다.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마칠 때까지 충성하신 예

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자는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관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3-6절).

충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친다는 말입니다. 생애까지도 바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절제서 심부름꾼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써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신 그분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충성하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내내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고분없는 자들을 돌보시려고 항상 사탄의 중에도 틈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는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걷가다가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 사랑의 순서를 바로 정하고 충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순서가 확실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남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충현교도 성도들은 사랑의 순서가 제대로 정해져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순서가 바뀌면 잘못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이 열한 사람, 그 다음이 육신을 구제하는 사랑으로 순서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시험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자는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순서가 바로 정해져야 합니다. 충현교도 성도들이여, 사랑의 순서가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현교도들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충성의 마지막 열매를 거두시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생애까지도 바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취하여 아무런 좋은 일을 해도 인간의 심장 멎는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나라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나그네길 가시는 여러 분들이여,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본받아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성목 목사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16)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애국된 신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 14절은 과거 유대교에 충성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기독교회를 펴박하고 잔해하였습니 다. 그런데 이 애국된 신념은 바로 세상과 사람들의 가르침들, 인위적인 신학이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동족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 16절을 통해서 그는 자기 아들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펴박과 파괴에 길들여진 갱신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

바울은 자신의 특별한 제형에 대하여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 다(16절). 사람들의 의견이나 현자들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제형을 통째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성령에 대한 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기 전의 바울처럼 애국된 종교적 열심만 가진 채 예수 그리스도를 행방하고 그 스매네에게 들을 던지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 다. 이 은총의 선물들을 위한 능력은 돈이나 명예 등 어떤 것에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을이나 명망, 혹은 육망 등으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타협할 여지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믿음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믿음조차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보다 먼저 믿은 성도나 사도들, 친척이나 친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각

에 의존하지 않는 바울의 철저한 태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의지해서 살았던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과 사회적 규약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돈과 자동차, 학위와 오락, 혹은 돈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주류에서 비주류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적인 안전과 보장, 장래를 책임져 줄 만능 교육과 사람들의 조언 등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이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 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를 위해 대신하는 이러한 욕망을 범하지 않았습니 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자신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멀어지는 것들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죄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더 이상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멋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전통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여론을 따르는 일반적 지식에 대한 갈망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께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나아가는 생화의 유일한 척도가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것입니다. 혈육의 문제에 관심을 쏟는 자들마다 여러분들 향해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의 충고와 요구들을 피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움직이는 신념이 우리들의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신념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살짝만이라도 세속적인 방법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뜻의 아내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심판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죽음 혹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육과 의논하기 위해 험쓰지 마십시오. 다른 의견들을 듣기 위해 다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단지 믿고 순종하십시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잠언에 “절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만일 예 열 사람이 움직이면 그 때 함께 움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6). 아멘!

믿음의 축복

바울이 되십시오. “내가 자유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우리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고전 9:1). 진정한 자유와 풍부한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펴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속하였으나 내가 아보다 오직 나 한 사람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9-1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

사람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는

바울의 철저한 태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의지해서 살았던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과 사회적 규약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을 항상 굳게 붙잡았습니 다. 그리고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는 믿음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팔아줄 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래서 펴박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과 엘리야, 다니엘과 세 친구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통치자요 인도자임을 알았습니 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완전히 맡겼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실지 기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졌습니 다. 그들은 혈육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그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모든 것을 던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일 회생

또한 이 믿음의 원리는 매우 적극적인 회생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질서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침묵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를 부르야 합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친구도 우리를 떠나갈지 모릅니다. 훌륭한 과다는 우리를 되돌아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멀리할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식들,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여러분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과는 완전히 상이한 관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행할

세계 선교

LMTC 훈련, 은혜중 마치며

김경희(권사, 훈련생)

평신도신학교훈련원(LMTC)에서의 훈련! 가슴 두근거리며 기쁨과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 개강예배 드림이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은혜 가운데 수료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무척 나가는 선교에 대한 지정 도서들을 한아름 사들고 와서 날 새는 줄 모르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하는 과제를 정리며, 강사들의 열정으로 그 동안 단편적이며 지극히 권위적이었던 선교-특히 단기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은 폭넓은 시야로 눈뜨게 되었고, 교정받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지 훈련의 일환인 단기선교지斯里랑가에서의 잊지 못할 사역을, 훈련기도원에서의 1박 2일 훈련, 강의가 끝나는 저녁 7시쯤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간식, 빵과 요거트, 그리고 그 시간 이후 나라별 언어 훈련 시간들, 배다나눔의 열정들이 떠오릅니다.

성실하게 강의를 해 주신 강사님들, 수업에 차질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없이 해 주신 선교연구원 스태프, 소리 없이 봉사해 주신 숨은 봉사자들도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만 되면 배다나눔은 계속 열정들로 가득 차있지요.

제게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또한 어떤 것일지 기대감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손길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1년간 우간다에서 행정사역을 담당할 이순주 단기평신도신교사(사진)를 포항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된 우간다 단기선교단이 12월 1일(수) 출국하였습니다.

단기선교단을 배웅하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하며 못내 아쉬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 시리도록 감사한 마음이 우리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인 이런 새까, 푸른 나무들이 우리만큼 자랐을 때, 더욱 힘차고 활발하게 ‘선교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밀가움이 되겠습니다.

우간다 단기선교단 10명은 12월 15일(수), 이순주 단기평신도신교사는 2000년 12월에 귀국 예정입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사랑하는 아버지(이강재 장로)께
중국에서 리양이

어떻게 지내세요? 오랫동안 편지 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여름에는 숙모 집을 방문해서 Lan Zhou에서 3주만 지냈어요. Lan Zhou는 계곡에 있거든요, 그리고 강이 여기를 가로질러 흘러요. 그래서 그곳 풍경은 아주 독특해요.

작년에 제가 시험 준비로 바쁘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그 시험 꽤 좋은 성적으로 패스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 모든 명이 참석되어 최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이 기쁨과 행복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은 다 지나갔어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Really wish God could help me).

추신 : 아! 그리고 또 하나! 성경 공부하려고 해요. 성경을 보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서에는 영어성경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맙습니다.

사람을 닮아서 Liang

* 리양(Liang)은 작년 여름 중국 단기선교팀을 통해 복음을 들은 자매로 그동안 꾸준히 사신들을 통해 복음 제사를 받으려 교제에 오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

‘99 이웃 사랑 돌아보기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이웃 사랑

남 모르게 행한

수많은 이웃 사랑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되었을 것

99년 한 해 동안에도 이웃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웃사랑’을 배운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생활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이에 교회차원에서 열심히 실천해온 ‘99 이웃사랑을 돌아본다. 물론, 알려진 이야기들이 성도들 각자의 삶에 가득할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시간 속에 묻혔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람의 기사들



사랑부와 외선부, 교정전도와 증례는 장에 지체들과 외국인 근로자 지체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나르는 차량봉사자(사람의 기사)들의 마음같은 사랑이 있다. 이들은 짧은 시간 2-3시간, 길면 9-10시간을 운전자로 섬겨야 하나, 반복되는 이 일을 귀찮이 계속하고 있다.

교회 주변 청소



봉사위원회의 주관으로 벌이는 교회주변 청소도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계속되었다(올해는 9월 9일). 교회와 이웃하고 있는 주택들과 상가 앞 도로를 다니며 휴지와 쓰레기를 줍고 쓸면서 그들에게 대가없이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가까운 이웃 먼 이웃구제



올해 여름엔 뒤늦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작년에 피해 입은 지역과 거의 비슷한 지역들을 또다시 수마가 한꺼번에 지나갔다. 이에 교회에서는 상당한 액수의 수재민 구호물품들을 해당지역에 지원했다. 그리고 엄청난 지진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린 터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터키 대사관에 구호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결실아동 돕기

올해, 교회학교에서는 ‘결실아동 돕기’를 시작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살펴 겸손히 도우면서 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시작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복지관 증축



지난 8월 26일에는 춘천 복지관 증축공사가 마무리되어 장애인 지체들을 위한 복지당, 치매예방, 건강증진실,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소그룹실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고, 작업재활실, 교육재활실, 보호작업장 등을 위한 공간이 확장되었다.

그 밖에도 각 교구와 전도회 등에서는 자원은하는 마음을 품고 정기적으로 각 배넌 따끈한 떡과 시원한 음료를 들고 병원을 방문, 환자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 이들은 떡과 함께 가장 큰 선물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가장 큰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어려운 이웃 공동체 돌아보기

마음먹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힘에 부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보육원(교양원), 양로원, 호스피스말기 입원자들을 위한 시설), 농아원, 장애인시설들...)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에는 어지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와 교구, 그리고 전도와 등에서 사랑터의 집, 섬김의 집, 어린양의 집, 나그네 집, 광주 은혜의 집, 양평 은혜의 집, 센터마음, 개가원 등 많은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예수 사랑을 나누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오! 우리 사랑에 배우고, 땀 흘리고서 돌아온다’는 것이다.

나의 작은 소망 3학년이 되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양 기 수(집사, 고등부 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선생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험생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인사하는 너희를 대할 때마다 "그때 벌써 그렇게 되었나?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대답하고선 그렇게 알아도 입시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이 마음 무거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지 못하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을 했구나 하는 자책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사랑하는 아이들!

이제 3학년이 되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또 너희를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고3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꼭 들려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는 너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되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라는 것이며, 셋째는 너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깨닫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자. 의 노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드러야 할 시간과 헌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의 재능과 솜씨와 시간과 명예와 재물 등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사용하시고자하시는 곳에 쓰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자. "주님, 저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사용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나는 기도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 자녀들이 시험 성적보다도, 수능의 결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중히 여 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며, 성적의 결과에 좌우 나 교사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맡기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 뵈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결과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 한 삶을 살자.

내년 이맘때에는 승리한 너희들의 고백의 글을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불 신

백 경 섭(대학부 7학년)

말을 많이 하던 할수록 더욱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잠할수록 더욱 공감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실형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잠잠해야 더욱 공감될 때가 있다.

지금, 이 황무한 가슴으로 고요히 다가오는 성령의 두드러지는 손길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주재할 수 없으리라. 신앙과 인식의 지평이 열리고 더욱 고개 숙여 어떠한 고통에도 소망으로 반응할 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진다. 나의 전파한 듯한 말투와 행위로는 결코 나타낼 수 없도록 조용히 겸허하게 인정하는 자아의 투명함 속으로 비취 들어오시는 한 줄기 거룩한 빛!

나는 날마다 나의 불신을 보며 그 불신 위에 차라리 잠잠하지도 않으시고 되려 강하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운행하심이 나에게 주재할 수 없는 부당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이내 내 모든 썩어질 허탄한 가슴의 우상들을 녹이시는 그분은 주님이시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의 통치하심과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안다 하는 이들의 아는 모든 것들을 잠잠히 낮추시며 그렇게 주께서 내 썩어질 육체를 가르시고 입시하기를 기도드린다.

기 도

송 은 섭(대학부 5학년)

주여,
내 마음의 풍파를 잠잠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오지 못하는 죄책 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음으로 감사함으로 기 뵈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나를 변화시 키시며 죽지 않을 것 같은 옛자아를 죽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용서함과 용서받음이란 은혜의 양면이었 지요.
나의 상황에 대한 인zicht 못함과 하나님 에 대한 원망
내 마음을 알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
수준 낮은 자신에 대한 자책

마음이 넓지 못하다고,
왜 그렇게 행동했나고,
영리하게 살지 못나고,

신중하지 못했나고,
충미 기다리지 못나고,
.....

생명을 상하게 하는 사랑이 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못난 자아를.
또한 용서했습니다, 내게 상처 준 모든 이들.

주님, 사모하는 이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은혜 외엔 다 른 것으로 살 지 않기를 원 하나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삼보다 귀한 고삼' 생활

최 윤 화(고등부 3학년)

"산삼보다 귀한 고삼이라 네."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장 난스럽게 하던 말이였다. 산삼보다 귀한 고삼 ... 너 무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말 이 맞는 것 같다. 그만큼 중 요한 시기라고나 할까.

고3이 되기 전 고2때 예 비 고3이란 말을 듣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라 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 상 고3이 되니 그게 잘 안됐 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구를 의지할 때도 많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도 못했 다. 세상에 쉽게 휩사였고 힘들었다. 마음도 외로워지 고 ...

마음 속에서 많이 방황하 면서 내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주님께서 이런 나에게 목사님과 전도사님 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깨닫 게 해주셨다. 내가 다른 곳 을 의지하고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주님이 지켜 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직 내 믿음이 약하지만 나를 버리고 주님 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 록 기도한다. 쓰임받는 그 룹이 되기 위해서.





내 입의 찬송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이 상 범

(김사, 가브리엘찬양대, 고동부 교사)

안개가 자욱한 주일 새벽 5시, 우리 가족이 탄 자동차는 교회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탄다. 안개가 너무 짙게 끼이면 그 어떤 빛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탄 자동차의 불빛도 바로 앞만 비출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 세상 어떤 빛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없는 것을 느낀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함소서
어디 가아 좋을지 나를 인도함소서
어디 가아 좋을지 나를 인도함소서 (찬송 421장)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지난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일마다 교회를 오가는 약 4천km의 길 위에 함께한 안절하듯 지쳐 주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린다.

교회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런 전철 사람

그를성경공부를 하거나 여럿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가끔 마주치게 되는 당혹스런 성향의 사람이 있다. 도무지 다른 형제 자매들의 견해나 은혜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도, 자신이 체험했거나 경험된 견해라도 생각이 나면 다짜고짜 본인의 말만 호소하고 그 말에 전제가 동의하거나 호응해 주어야만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또 자신의 직장과 교회와 구분이 안되는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본인의 직분이 마치 적임인 것처럼 여겨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는 지체들이 교회라는 회사의 사원인 양 대우하며 사담보다는 행사를 우선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물론 교회에서 주님만 바라보노라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다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어찌 '사랑'으로 포용만 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나뉘는 남을 닮게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잡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랑을 체험케 하는 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형제 자매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연합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서 받아 주실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마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에 형제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들의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본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거듭남을 입은 우리를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는 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장대선)

"아들의 결혼 때문에"

정 영 심(새가족부)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아들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찾아가 다니더니 결국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기도 하였으나, 제가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목사가 되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주위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다른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잘 살고 있는 게 아이는 장가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니다. 그 당시가 32살 겨우이었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니다. 또 전도사로서도 어이가 다니기 다니는 데 법밖에는 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열려나 있었습니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 녀석이 모교의 장로님의 마담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시간이 흐르고 상견례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상견례때 모인편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시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니다. 양가 집안이 만나는 자리에서 장로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지회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니다. 두 분이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더욱 중요하습니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막내 아들의 권유로 집안의 제사도 추도예배도 드리고 있었던 터라,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언젠가는 교회에 가 있었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렇게 아들의 결혼을 통하여 앞당겨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2월경 장로님의 인도로 처음으로 총현교회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고 매주일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험등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가족부 선생님의 도움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는 것이 더디고 찬송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새벽기도에 성경을 읽습니니다. 제 남편은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아들의 결혼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믿음에 연합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가 하나님 나라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회복케 하신 하나님

백 명 작(장년2부 신임부 교사)

예수님 믿어 병과 고통을 받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여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으며, 그래서 남보다 더 앞장서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여 다녔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건축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복을 위해 진로를 바꿔라"(막 10:29)는 말씀에 붙들려 하던 과외를 그만두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94년 겨울, 남편이 당연히 합격케리라 생각했던 건축사 2차 시험에 떨어지고 95년 봄, 전세 살인 집이 강제로 넘어가 쫓겨날 형편에 기도하던 중, 교회 앞 지하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셨다.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나오지 않는 직장생활이었으며, 여러 가지로 저절리 놓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형편이었다. 전 화세, 전기세까지도 놓고 기도해야 했으며 아이와 편파나 사 출 형편도 안되었고, 주일 헌금조차 못낼 형편이 되면서 전적으로 교회에 가서 밥만 나오게 되었다. 남다른 이런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밥만 나오게 되니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그 동안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비로소 환하게 보이게 되었다. "기도하면 딸이 나오나" 하던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남편이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복이 주시고 풍요 주셨다.

96년도에도 건축사 시험을 떨어지고 생각지도 않게 아이가 생겼으니 입맛까지도 실패 형편에 방과까지도 강 나서 아이스팩으로 얼음을 얻어와 먹어야 할 정도로 낮추시는 데까지 가 나왔다. 4개월 초에 자연 유산이 되고 몸이 너무 약하여서 새벽기도회도 못나가고 누워 있던 중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잃어 버린 것 같은 형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감사하게 하셨다.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무조건 감사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연약한 "절교 같은 존재"



(고후 4:7)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생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며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 내어 놓게 하시고, 그 이해를 신학교에 편입학하게 하셨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도 모자랄 형편에 학비도 없는 나를 학교에 가게 하시고 끝까지 공부하게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94년 이후 계속 잃어버리게 하시면서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때로 추운 겨울에는 기름 살 돈이 없어 한 방에 앉아 감지 하나 놓고 밥을 먹다 목이 마르면 그곳에도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더워지면 주시며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가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 것들을 잃게 하심으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욱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단란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영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사119:71).

올해에는 그동안 잊었던 물질 문제를 해결되었고 늦둥이 아들도 주셨고 남편도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게 하심으로 밀려던 월급 일부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으리니.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신 18:13)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관리하는 일들이 있었을 뿐이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혜도 소식

영아부

사순기도 걱정 없도록 신앙으로 키우겠어요!

지난 주일에는 엄마, 아빠들께 김복순 전도사님께서 특별강의를 해 주셨다. 영아들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신앙으로 잘 키우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아이가 자라 사순기가 온다 해도 걱정이 없도록 어린 아기에부터 신앙 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다. 부모들의 깊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부모들은 강의 내용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금년도 마지막 학습 평가

한 해를 마무리짓는바 분주한 시기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1년에 네 번 치르는 성경시험은 평균점수를 내어 연말 시상에 반영하게 된다. 1년 동안 배운 하나님 말씀 알만큼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까? 귀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와 생활 속에서 작은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윤숙희 통신원)

초동부

교사 지각 없는 주일

계속되고 있는 지각 안하기 운동에 교사들이 먼저 모습을 보이교자 지단 주일에는 '교사 지각 없는 주일'로 지켰다. 그 동안에 교사 지각에 걸렸거나 지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주일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일찍 나와서 기도로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어린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4학년 어린이들이 분당에 모여서 수로식 사진을 찍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지만 모두 모아서 이제 한 할 후편 해이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미숙 통신원)

장년3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로 다짐한 성경퀴즈대회

성경퀴즈대회가 있었다. 목사님이 140문제를 내어 주셨고 묻고 대답하는 시간은 전설로 우리가 답을 가까이 하고 배움에 열심이있었는가를 측정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회원들은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면서 답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믿음의 한식 위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한 성경 속에 배움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깨우치고 이 귀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 배움을 깨울리하리 마땅 하고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의 터를 굳건히 하여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힘써 나가기로 결심했다. (염미숙 통신원)

사랑부

주님 사랑 안에서 과별 친교

지난 주일 2부 순서로 과별 친교 시간이 마련되어있었다. 사랑부 학생들의 특성상 교사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만 집중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친교시간은 교사들에게나 학생들에게 주위의 다른 학생들과 폭넓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과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각종 과자와 케이크, 바나나, 사과, 꿀 등의 과일, 전 고구마 등의 정성어린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서 간단한 게임도 준비되었다.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다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는 못했다. (한혜정 통신원)

1교구

복음으로 기경되어야 할 곳, 중추 자금면

11월 25일 중추 가금교회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사역을 실시하고 돌아왔다. 그동안 기도도 마음의 준비를 해오던 53명의 전도대원이 들며 약자이 500여대를 살았이 심방하였다. 자금면은 복음화율이 5%가 안되는 곳으로 내년에 중당담을 비롯하여 6개의 사찰과 우상을 섬기는 집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각종 우상 숭배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일기는 차고 바람은 불었지만, 교구 직원들과 가금교회 교인들의 가금 지역의 복음화와 영혼을 위한 마음을 뜨거웠다. 예수를 소개하며 영접시키고 환자를 위하여 기도도 하며 전국

나 · 불 · 바 · 곧 · 한 · 마 · 디

-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들려 주신 주님의 음성 -

“너희는 ...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배 롱 락(집사, 중동2부 교사)

지금은 온 가정이 주님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토속신앙에 젖어 있던 집안에서 자라 중 · 고등학교 시절 교회학교에 다니면서도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나 성경의 체험없이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상생활에 젖어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님께서 불러 주신 송구영신예배, 또 한해를 덧씌워 보냈구나 하는 텅빈 가슴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서교독을 하던 중에 뜨거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전율시키며 뜨거운 눈물을 쏟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깨어지지 않는 구름을 찾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평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이 말씀이 저의 마음 속에 뜨겁게 번차오름을 주었습니다. 온갖 찬송의 구절들이 가슴 속에서 터져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우며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은 환희로 가득했고, 두 눈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때에 젖어 있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최인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간절히 믿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신 주님, 성령의 힘을 주시는 주님, 새로운 목표를 세워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극히 작은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주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막 9:23)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저의 더러운 일들을 흰 옷불로 지저 주시고 두 눈에 가려진 비늘을 벗겨 주시어 영의 눈을 밝히 주시옵소서.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함을 갖게 하옵시며 나 자신을 날마다 죽게 하소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깨끗하고 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을 소망케 하고 사신 확대 촬영과 이미지전도팀과 하 나된 현상이었다. 문헌박대 하는 자, 아예 들을 생각도 없는 자, 영접 기도 중에 ‘불쌍한 어기소자’라는 기도 에 아들, 딸 다 있는데 무엇이 불쌍하느냐고 뿌리치며 화를 내어 결국 영접 기도 드리기를 거부한 자, 천국과 지옥의 구분도 못하는 자들을 대하면서 전도는 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뒤로 물러서 대면해서는 아니될 일임을 이번 사역에 동참한 모든 회원들이 절감하였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83명의 결신자가 나왔다. 이들 결신자들을 앞으로 계속 가금교회에서 관리, 심방 하며 양육을 할 계획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라!

(임명태 통신원)

청년2부

서울역을 사망의 광장으로

오늘 12월 23일 주님의 탄생 기념을 이틀 앞두고 서울역 광장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청년2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역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들과 이곳을 찾는 많은 행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서울역 종전도침례’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잘 참여진 덕택을 자랑하는 청년2부 찬양팀의 힘찬 찬양으로 시작한다. 10여 명에 이르는 찬양팀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리는 노래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다. 동시에 청년회원들은 전도지를 들고 이곳을 분주히 오가는 행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을 함께 공유할 것을 권유할 계획이다.

이번 전도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전영훈 목사님의 설교와 이기 권병희는 노숙자에 대한 구호를 펼친 것이다. 청년2부는 차가운 콘크리트에 몸을 주이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300여개의 성탄 카드와 도시락, 그리고 옷가지를 전달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헌 옷이나 모자, 양말 등 보은 의류 모두 소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동석 청년2부 회장은 “서울역 노숙자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전도집회를 통해 생명을 갖게 되고 이기 참여하는 지체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2부는 성도들이 이번 전도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만일 필요한 각종 의류와 물품 후원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라고 있다.

(나은희 통신원)

권사회의

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신 권사님들께

할렐루야! 다시다단하웠던 99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두능하고 연한 회회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에 잠긴 바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불편할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나 각자 정한 날짜와 시간을 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국내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한 사명을 맡은 권사님들에게 2000년대의 감정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육의 건강함과 환경을 주옵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끝으로 여러 권사님의 몸심양면으로 힘써 주심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일시 : 12월 12일(다음 주일) 오후 3시
- 장소 : 갈릴리움

권사회 임원 일동

- 모집 물품 : 옷, 모자, 양말 등 보은 의류
- 모집 기한 : 12월 19일(셋째 주일)
- 접수 장소 : 시무국 앞

[illegible]

김윤덕 집사의 딸) / 11월
(토) 14:00 복지관

1. 이다운 군(이창섭 성도, 신자 집사의 아들, 15교구)과 최명희 양(최봉문 씨, 경자 집사의 딸, 19교구) 11일(토) 13:00 갈릴리홀

2. 김철현 군(김상인 집사, 화자 집사의 아들, 15교구)과 정현정 양(정성익 집사, 화자 집사의 딸, 15교구) 11일(토) 13:00 갈릴리홀

· 일시: 12월 10일(금) 13:00 · 장소: 충청북지역 강당
· 참가비: 1만원(자료집 포함)
· 내용: ① 정치지체인 자조 모임 및 인권운동
강사: 아메 마끼오(일본 광활자 평화의 집 대표)
② 일본 통근료의 역사 및 앞으로의 방향성
강사: 아라이 아카라(통근로 지도회장)
③ 일본 정치지체인 여성 시설의 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
강사: 다케이 토시루(일본 북총속성원 회장)

번호	성 명	교구	소속처	인도지	번호	성 명	교구	소속처	인도지	번호	성 명	교구	소속처	인도지
1552	조경선	1	청년2부	1564	장명순	13	한 나	1576	선우성은	2	청년2부			
1553	박금자	1	청년2부	1565	안영연	16	루디아	1577	이현정	3	청년1부			
1554	함영민	1	에스더	송윤권(1)	1566	조한희	19	중동부	1578	이은정	7	청년2부		
1555	신희용	1	바울	송윤권(1)	1567	내대일	19	중동부	1579	김진홍	19	청년1부	이진규(7)	
1556	이귀일	1	소망부	김희선(1)	1568	정의자	19	중동부	1580	채미연	19	에바나무		
1557	이임남	2	바울	1569	박은경	19	청년1부	막달렌(4)	1581	신수진	19	청년1부		
1558	홍순진	1	루디아	1570	노지희	19	청년1부	서경희(2)	1582	김두복	3	베드로		
1559	이현주	2	대학부	1571	양승수	2	청년1부	서경희(2)	1583	조재영	3	바울		
1560	이수훈	2	대학부	1572	원종섭	19	청년1부	1584	정호수	3	베드로			
1561	김원자	5	에스더	고정심(5)	1573	원종식	19	청년1부	1585	김홍중	3	요한		
1562	배복동	10	소망부	유호선(8)	1574	정덕민	19	에바나무	김명희(192)					
1563	전경례	11	루디아	1575	이경자	1	에스더	이수자(1)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인상(장로, 소년부 부장)

오로지 천국일꾼으로 자리잡아 할
어린 심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자
기를 연소시켜 버림으로써 희생해야
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절대 주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아
속하였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제수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
지주요 셋째는 교사로요" (골 2:18).
교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혜의 각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은 십기일천하여 어
떠한 난관과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과
감히 뚫고 교육 본연의 길을 가야 매
진해야 한다.

최의철	조소건	김은호
김자성	김경철	우기전
노영만	최대환	강하우
윤인현	오진권	박승문
기홍률	강은진	김도용
박희재	서광우	남선우
최현덕	이 훈	최희준
최태경	정은숙	김영길
송현하	김종구	최무길
조인제	차진숙	김재명
이창호	이종식	송경수
김장남	이하영	박민건
윤성철	안종욱	최인준
이병욱	이종심	이인상
김기환	정헌용	최기훈
임무천	황인준	전종렬
이갑재	황인준	송 현
김관용	황인준	김영수
이진재	왕윤성	안동현
김환기	김주영	최재영
최의환	김주영	

■ 부두사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김필수	정현준	이승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곤	조철수	김동하	이승환	김병태
김진익	권한성	서광진	차봉남	정해성
이준경	박기진			
■ 교육목표	현업인			
■ 협동목표	윤영택	박석열	노동민	
■ 선사고	이준호	안학열	김영대	정은호
	강민구	수준	김도인	제 나
■ 천연감독	강민구	수준	김도인	한승일
■ 연전도사				
■ 연전도사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송학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유자	한영준
김정숙	박복순	김진익	계선화	
■ 정정(정, 반)				

	구분	시간	장소
주요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특별 주일성경공부예배)	본당
	IV	오전 10:00(특별 주일성경공부예배)	본당
	V	오전 5:00 (특별 주일성경공부예배)	본당
English Service		9:00a.m.	복음화기독교교회(Cross Hall)
천주교예배	오전 5:00	본당	
수요예배	1.오전 11:00 2.오전 7:00	본당	
금요일예배	오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